

#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중단 매개효과 분석

박새롬<sup>1)</sup> 노보람<sup>2)</sup> 박혜준<sup>3)</sup> 이순형<sup>4)</sup>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각각 검증하고,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5차 연도(2012년)~7차 연도(2014년) 부모 1,352쌍의 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2012년)이 온정적 양육태도(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상대방효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자기효과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2012년)이 가족유연성(2013년)의 지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 크기 비교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관계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중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사회적 유능감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 I. 서론

가족은 영유아기 자녀가 최초로 마주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정서적 환경이다.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는 가족을 모빌에 비유하여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원과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본다. 가족의 하위체계인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는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달의 맥락을 조성하고 역할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으로 부부갈등,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은 부부갈등(김미정, 2015; 윤해옥·최효식, 2016; 정소희, 2011), 양육태도(이찬숙·이재호, 2009; 채영문, 2010; Anthony et al., 2005; Baumrind, 1978; Rispoli et al., 2013), 가족기능(권태우·조규관, 2015; 선애순·이미나, 2012; 표하나·김영모, 2005)을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의 응답을 분석하여 가족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중단적 구조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은 사회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능력이다. Rose-Krasnor(1997)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감은 상호작용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연구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 사회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 혹은 발달 결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정보의 처리과정, 갈등 조절 기술,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가정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다면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Webster-Stratton & Lindsay, 1999).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와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아는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 교사와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찬숙·이재호,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측면 중 가정 및 일상생활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초점을 두며 여기에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같은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며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이인정·김미영, 2014). 부부갈등이 정상적인 것이라 해도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거나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면 부부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를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자녀를 포함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자녀에게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의 이혼보다 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정소희, 2011). 부모의 부부갈등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스트레스 원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임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높은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며, 공격 성향 또한 증가한다(박정희·유순화, 2007).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임미지·문혁준, 2014),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친사회적 또래상호작용은 낮아지고 반사회적 또래상호작용은 높아진다(김미정, 2015).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가 어떻게 갈등상황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모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가 부부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이나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김미정, 2015; 정소희, 2011; Kitzmann, 2001; 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관심과 지지수준이 낮으며(Kitzmann, 2001), 정서적 수용에 더 취약하다(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보이기 어렵고, 적절한 행동지도와 감독을 적게 하기 쉬우며, 심할 경우 자녀를 학대하는 부정적 양육행동 보이기도 한다(정소희, 2011). 부부갈등과 가족기능의 관계는 주로 가족기능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되었는데, 부부갈등과 친밀성과 같은 가족기능 사이의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채유경, 2005), 부부갈등 수준이 높으면 가족원 간 역할을 공유하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고 부모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부모는 양육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부모-자녀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사회적 특성은 양육을 매개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Dumm, Brown, & Beardsall, 1991, 김선희, 2014에서 재인용).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고(김신정·김영희, 2007; 김현미·도현심, 2004; 민현숙·문영경, 2013; 채영문, 2010; Anthony et al., 2005; Rispoli et al., 2013),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난다(김선희, 2014).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고(강상·권가영·류경희, 2013; 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채영문, 2010),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진다(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 2016).

Olson(2000a)이 제시한 균형가족의 특성중 하나인 가족유연성은 가족체계가 문제에 마주하여 가족의 권력,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유연성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 가족유연성이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토대로 하고,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유연성은 가족구성원의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가족 적응성이 높은 경우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고(권태우·조규판,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선애순·이미나, 2012).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은 커플 간 상호의존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한 개인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자신의 심리나 행동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effect),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effect)라고 한다. 가족체계 내 부부 간 상호의존적이며 역동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APIM에 종속변수로 자녀 변인을 추가하여 부모가 상호 의존적으로 자녀의 발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윤해옥·최효식, 2016;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 윤해옥과 최효식(2016)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가 상호의존적으로 유아의 발달(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을, 최효식 등(2016)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상호의존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는 상호의존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뿐 아니라 상대방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의 상호의존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종단적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종단적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가족유연성이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구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SKC) 데이터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7차년도(2014년)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2,150가구 패널을 구축한 전국단위 데이터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기 위해 완전제거 방식(listwise)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총 1,352가구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N=1352쌍  
단위: 명(%)

연구대상의 특성		부(%)	모(%)
연령	30세 이하	52( 3.8)	140(10.4)
	31세-35세	392(29.0)	666(49.3)
	36세-40세	656(48.5)	455(33.7)
	41세 이상	247(18.3)	86( 6.4)
	합계	1347(99.6)	1347(99.6)
	결측	5( 0.4)	5( 0.4)
학력	고졸 이하	367(27.1)	395(29.2)
	전문대졸	266(19.7)	378(28.0)
	대졸	577(42.7)	510(37.7)
	대학원 이상	137(10.1)	64( 4.7)
	합계	1347(99.6)	1347(99.6)
	결측	5( 0.4)	5( 0.4)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23( 9.1)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339(25.1)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362(26.8)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64(19.5)	
	500만원 초과	262(19.4)	
	합계	1350(99.9)	
결측	2( 0.1)		
자녀성별	남	698( 51.6)	
	여	654( 48.4)	
	합계	1352(100.0)	
자녀출생순위	첫째	624( 46.2)	
	둘째	574( 42.5)	
	셋째 이상	154( 11.3)	
	합계	1352(100.0)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아버지는 36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8.5%, 어머니는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가 26.8%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46.2%, 둘째 4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 가.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2001)의 연구와 정현숙(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부부갈등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어머니 .916, 아버지 .911로 나타났다.

### 나. 온정적 양육태도

온정적 양육태도는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및 권희경(1999)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양육스타일 문항 중 온정적 양육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어머니 .841, 아버지 .876으로 나타났다.

#### 다. 가족유연성

가족상호작용은 Olson(2010b) FACES IV의 하위요인인 응집성의 균형과 유연성의 균형 문항을 번역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응집성 균형은 가족원 간 감정적 결합의 정도를 의미하고, 유연성 균형은 가족 내 역할관계와 변화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소통과 역할분담과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상호작용 척도 중 유연성 균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유연성이라 명명하였다. 가족유연성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50 미만(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으로 나타난 1문항(“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가족유연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어머니 .830, 아버지 .8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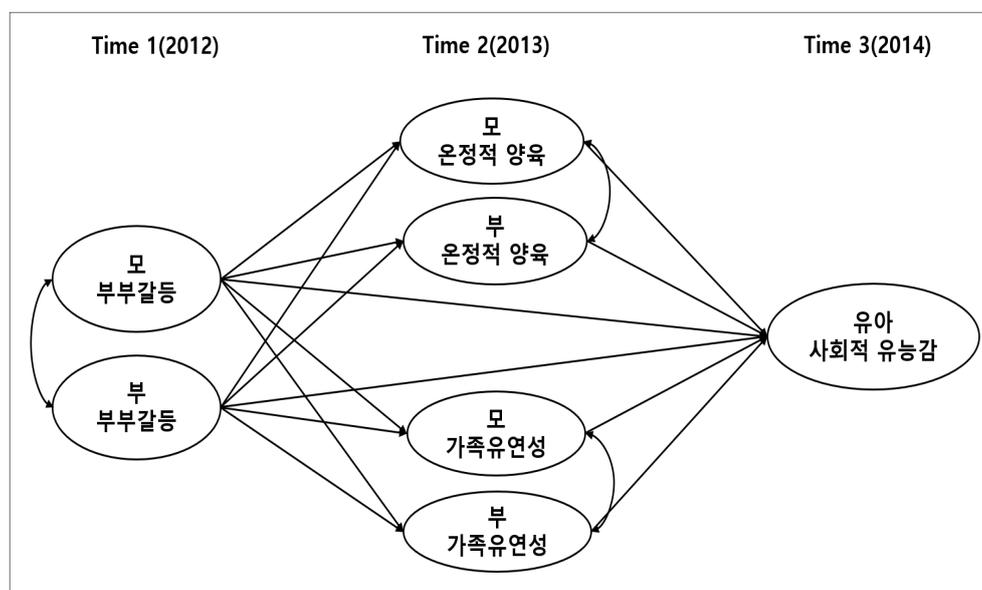
#### 라.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Gresham과 Elliot(1990)의 연구와 서미옥(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사회적 유능감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성(11문항)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친구를 쉽게 사귀다.”, 협력성(6문항)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자기통제(7문항)는 “다른 사람과 게임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지시를 따른다.”, 책임성(8문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한다.”, “다른 아이와 다툼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사회적 유능감 전체 .924이었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주장성 .846, 협력성 .814, 자기통제 .794, 책임성 .777로 나타났다.

###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APIM은 부부, 연인, 부모-자녀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Kenny et al., 2006).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자료는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첫째,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

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측정도구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에 종속변수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종속변수가 포함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분석절차는 각각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모형비교를 한 후 최적모형을 찾는 연구(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를 참고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붓스트랩 검증(bootstrapping)을 통하여 종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chi^2$  값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RMSEA*와 *TLI*의 경우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홍세희, 2000).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면 타당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2012년, 5차 연도),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6차 연도),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 7차 연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N=1352쌍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paired-t
부부갈등(2012)	모	2.09	.76	.65	.17	1.04
	부	2.08	.72	.47	-.08	
온정적 양육태도(2013)	모	3.68	.53	-.09	.31	3.57***
	부	3.61	.62	-.17	.43	
가족유연성(2013)	모	3.60	.58	-.43	1.01	-8.32***
	부	3.72	.53	-.11	.61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주장성	2.38	.36	-.26	-.55	-
	협력성	2.02	.40	.03	.27	
	자기통제	2.52	.35	-.37	-.71	
	책임성	2.26	.33	.06	-.03	
	전체	2.29	.30	-.10	-.25	

\*\*\*  $p < .001$ .

5점 척도로 측정된 부부갈등 평균은 부모 각각 2.08, 2.09로 두 집단 모두 중간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부모가 인식하는 갈등 수준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모 각각 3.61, 3.68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7, p<.001$ ). 가족유연성 평균은 각각 3.72, 3.6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족유연성이 어머니에 비해 더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8.32, p<.001$ ).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관계를 더 균형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역할의 변화 또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점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은 2.29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주장성( $M=2.38, SD=.36$ ), 협력성( $M=2.02, SD=.40$ ), 자기통제( $M=2.52, SD=.35$ ), 책임성( $M=2.26, SD=.33$ )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분석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변인 모두 왜도  $\pm 2$  미만, 첨도  $\pm 7$  미만으로(West, Finch, & Curran, 1995) 구조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 $r=.63, p<.001$ ), 온정적 양육태도( $r=.29, p<.01$ ), 가족유연성( $r=.53, p<.001$ ) 수준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부갈등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모:

$r=-.20, p<.001$ ; 부:  $r=-.19, p<.001$ ) 및 가족유연성(모:  $r=-.48, p<.001$ ; 부:  $r=-.34, p<.001$ )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모:  $r=-.15, p<.001$ ; 부:  $r=-.18, p<.001$ ) 및 가족유연성(모:  $r=-.35, p<.001$ ; 부:  $r=-.38, p<.001$ ) 또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모두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보다 가족유연성의 평가와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자녀에 대한 반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가족 내·외적 변화와 역할 분배, 문제해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욱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변인 및 전체 점수는 부모의 부부갈등과는 부적 상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과는 정적 상관(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N=1352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63***	1									
3	-.20***	-.15***	1								
4	-.19***	-.18***	.29***	1							
5	-.48***	-.35***	.40***	.35**	1						
6	-.34***	-.38***	.25***	.50***	.53***	1					
7	-.07	-.09	.28***	.13**	.18**	.15**	1				
8	-.13***	-.10*	.25***	.16***	.21***	.16***	.46***	1			
9	-.18***	-.15***	.32***	.15***	.20***	.14***	.62***	.51***	1		
10	-.12***	-.10***	.34***	.20***	.22***	.17***	.70***	.57***	.70***	1	
11	-.15***	-.13***	.35***	.19***	.24***	.19***	.83***	.78***	.84***	.88***	1

주. 1: 모 부부갈등(2012), 2: 부 부부갈등(2012), 3: 모 온정적 양육태도(2013), 4: 부 온정적 양육태도(2013), 5: 모 가족유연성(2013), 6: 부 가족유연성(2013), 7: 유아 주장성(2014), 8: 유아 협력성(2014), 9: 유아 자기통제(2014), 10: 유아 책임성(2014), 11: 유아 사회적 유능감 전체(2014).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부모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각각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부부갈등 측정모형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부부갈등 8문항을 포함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A),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B),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지 않고 오차공분산을 가정한 모형(C), 그리고 요인부하량 제약 및 오차공분산 가정을 모두 설정한 모형(D)의 적합도를 <표 3>과 같이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TLI*, *CFI*, *RMSEA*, *SRMR*값을 비교하여 모형 C와 D의 적합도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관계에 있는 두 모형에 대한  $\chi^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Delta\chi^2(df=7)=56.95, p<.05$ ), 모형 C에 대한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모형 A	1253.577	103	.909	.922	.091 (.086-.095)	.049
모형 B	1309.804	110	.911	.918	.090 (.086-.094)	.050
모형 C	926.077	95	.929	.944	.080 (.076-.085)	.041
모형 D	983.026	102	.930	.940	.080 (.075-.085)	.043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모형 C에 부모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한 쌍씩 각각 제약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표 5>와 같이 비교하였다. 기저모형과의  $\chi^2$  차이 검증 결과 영가설이 기각된( $CV: .95\chi^2_1=3.84$ ) 경로 d와 f를 제외한 a, b, c, e, g 경로를 제약한 모형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제약되지 않은 문항은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와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이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100, N=1352)=943.369$ ,  $TLI=.931$ ,  $CFI=.943$ ,  $RMSEA=.079(90\% CI[.074, .084])$ ,  $SRMR=.042$ 로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형에서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의 예측평균은 어머니 1.857(분산=.35), 아버지 1.904(분산=.34)이었으며 부모 간 상관은 .654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갈등수준은 유사하며 부부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끼는 갈등수준에는 개인차가 각각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5〉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제약경로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제약여부
a (문항2)	926.452	96	.929	.944	.080 (.075-.085)	.041	✓
b (문항3)	928.021	96	.929	.943	.080 (.075-.085)	.041	✓
c (문항4)	926.266	96	.929	.944	.080 (.075-.085)	.041	✓
d (문항5)	937.852	96	.929	.943	.081 (.076-.085)	.043	
e (문항6)	928.913	96	.929	.943	.080 (.075-.085)	.042	✓
f (문항7)	936.710	96	.929	.943	.081 (.076-.085)	.042	
g (문항8)	929.526	96	.929	.943	.080 (.076-.085)	.042	✓

### 3.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부부갈등(2012년)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에서 온정적 양육태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표 6>와 같이 비교하였다.  $\chi^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이므로( $\Delta\chi^2(df=5)=13.69, p<.05$ )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에 대한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을 한 쌍씩 제약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영가설이 기각된( $CV: .95\chi^2_1=3.84$ ) 경로 b를 제외한 a, c, d, e 경로를 제약한 모형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으로 채택되었다(<표 7>). 제약되지 않은 문항은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이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345, N=1352)=1729.357, TLI=.931, CFI=.937, RMSEA=.054$  (90% CI[.052, .057]),  $SRMR=.036$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6〉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기저모형	1721.928	341	.931	.938	.055 (.052-.057)	.036
제약모형	1735.622	346	.931	.937	.055 (.052-.057)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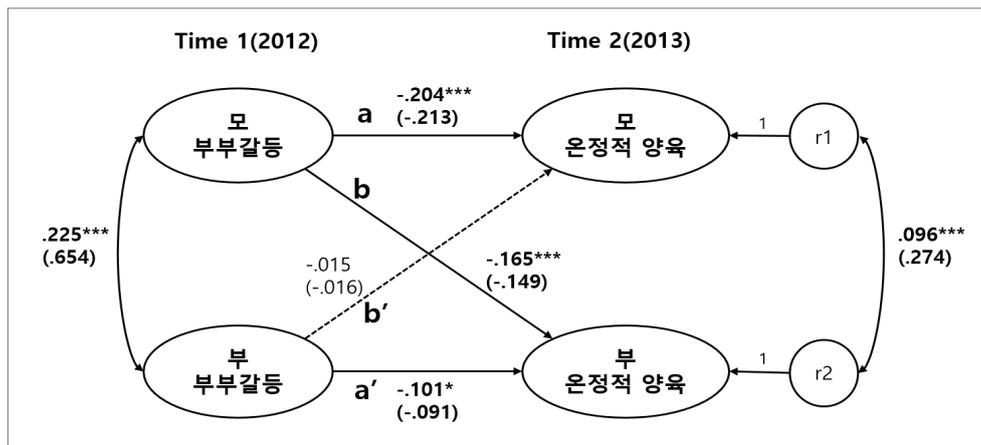
〈표 7〉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의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제약경로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제약여부
a (문항2)	1722.210	342	.931	.938	.055 (.052-.057)	.036	✓

(표 7 계속)

제약경로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제약여부
b (문항3)	1728.511	342	.931	.937	.055 (.052-.057)	.036	
c (문항4)	1724.853	342	.931	.938	.055 (.052-.057)	.036	✓
d (문항5)	1723.004	342	.931	.938	.055 (.052-.057)	.036	✓
e (문항6)	1724.227	342	.931	.938	.055 (.052-.057)	.036	✓

최종 선택된 온정적 양육태도의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을 적용하여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213, p < .001$ ) 및 상대방효과( $\beta = -.149, p < .001$ ), 그리고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091, p < .001$ )가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  $p < .001$ .

[그림 2]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면 제약한 경로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상대방효과( $b=b'$ ) 및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갈등 효과( $a=b'$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CV: .95\chi^2_1=3.84$ ). 이 결과는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들 간의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효과는 자기효과( $\beta=-.213$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만이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 $\beta=-.091$ )와 상대방효과( $\beta=-.149$ )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효과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 또한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유의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채택 여부
기저모형	1729.357	345	.931	.937	.054 (.052-.057)	.036	-
자기효과 등가제약 ( $a=a'$ )	1731.869	346	.932	.937	.054 (.052-.057)	.036	채택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 $b=b'$ )	1734.741	346	.931	.937	.055 (.052-.057)	.037	기각
모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등가제약( $a=b'$ )	1736.087	346	.931	.937	.055 (.052-.057)	.037	기각
부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등가제약( $a'=b$ )	1729.953	346	.932	.937	.054 (.052-.057)	.036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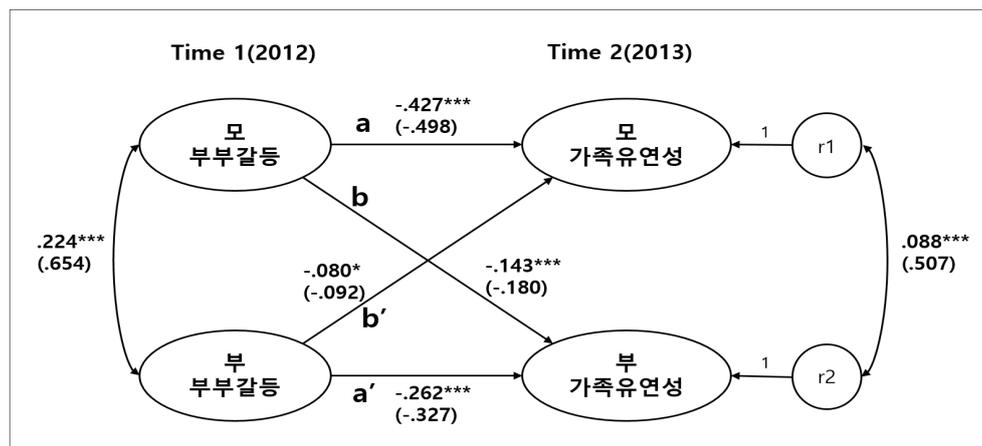
#### 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부부갈등(2012년)이 부모가 평정한 가족유연성(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1문항이 제외되고 총 6개 측정변인이 포함된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서 가족유연성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기저모형과 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chi^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서로 동일한 모형이므로( $\Delta\chi^2(df=5)=10.75, p<.05$ ) 제약모형을 채택하게 되어 가족유연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 9>와 같이 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TLI, CFI가 각각 .9 이상, RMSEA, SRMR이 .05 이하로 타당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9〉 가족유연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기저모형	1701.816	341	.928	.935	.054 (.052-.057)	.040
제약모형	1712.567	346	.929	.935	.054 (.052-.057)	.040

최종 선택된 가족유연성의 측정동일성 모형을 적용하여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498, p<.001$ ) 및 상대방효과( $\beta=-.180, p<.001$ ), 그리고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327, p<.001$ ) 및 상대방효과( $\beta=-.092, p<.05$ )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가 평가한 가족유연성 수준에는 자신과 상대방이 느끼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모두 반영되며,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유연성은 더 낮게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  $p < .001$ .

[그림 3]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관계에서 부부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자기효과( $a=a'$ ), 어머니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갈등 효과( $a=b'$ ), 아버지 가족유연성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

등 효과( $a' = b$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CV: .95X^2_1=3.84$ ).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은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등가제약 모형 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 $\beta=-.498$ )와 아버지( $\beta=-.327$ )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부갈등의 지각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상대방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 $\beta=-.498$ )와 상대방효과( $\beta=-.092$ ) 간, 그리고 아버지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 $\beta=-.327$ )와 상대방효과( $\beta=-.180$ )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신이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자신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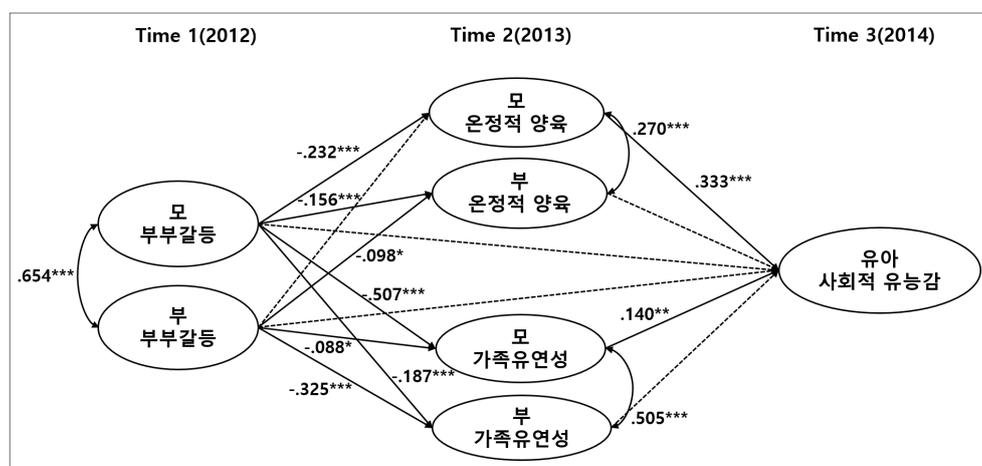
〈표 10〉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유의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채택 여부
기저모형	1712.567	346	.929	.935	.054 (.052-.057)	.040	-
자기효과 등가제약 ( $a=a'$ )	1723.244	347	.929	.935	.054 (.052-.057)	.042	기각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 $b=b'$ )	1714.160	347	.929	.935	.054 (.051-.057)	.040	채택
모 가족유연성에 대한 등가제약( $a=b'$ )	1747.453	347	.928	.934	.055 (.052-.057)	.044	기각
부 가족유연성에 대한 등가제약( $a' = b$ )	1716.915	347	.929	.935	.054 (.052-.057)	.041	기각

#### 4.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유아 사회적 유능감 간 구조모형의 종단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부갈등(2012년),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년) 간 구조모형에서 종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891, N=1352)=3570.744$ ,  $TLI=.911$ ,  $CFI=.916$ ,  $RMSEA=.047(90\% CI [.046, .049])$ ,

SRMR=.072로 이 모형이 자료에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은 종단적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모형의 다중상관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확인한 결과, 이 모형은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 변량의 5.6%, 아버지 온정적 양육태도 변량의 5.4%, 어머니 가족유연성 변량의 32.3%, 아버지 가족유연성 변량의 22.1%,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 변량의 16.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그림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4]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표 1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2012년)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 $\beta = -.232$ ,  $p < .001$ ) 및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beta = -.156$ ,  $p < .001$ ),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가족유연성( $\beta = -.507$ ,  $p < .001$ ) 및 아버지의 가족유연성( $\beta = -.187$ ,  $p < .001$ )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 $\beta = -.098$ ,  $p < .05$ ) 및 가족유연성 평가( $\beta = -.325$ ,  $p < .001$ ),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유연성( $\beta = -.088$ ,  $p < .05$ )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beta=.333, p<.001$ )와 어머니가 평가한 가족유연성( $\beta=.140, p<.01$ )만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2012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은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유아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을 완전 매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beta$
모 부부갈등(2012) → 모 온정적 양육(2013)	-.223***	.040	-.232
모 부부갈등(2012) → 부 온정적 양육(2013)	-.173***	.045	-.156
모 부부갈등(2012) → 모 가족유연성(2013)	-.435***	.035	-.507
모 부부갈등(2012) → 부 가족유연성(2013)	-.149***	.031	-.187
부 부부갈등(2012) → 모 온정적 양육(2013)	-.007	.040	-.008
부 부부갈등(2012) → 부 온정적 양육(2013)	-.109*	.045	-.098
부 부부갈등(2012) → 모 가족유연성(2013)	-.077*	.032	-.088
부 부부갈등(2012) → 부 가족유연성(2013)	-.262***	.032	-.325
모 온정적 양육(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161***	.016	.333
부 온정적 양육(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9	.013	.046
모 가족유연성(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76**	.025	.140
부 가족유연성(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20	.025	.035
부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6	.019	-.034
모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8	.021	.039

\*  $p<.05$ . \*\*  $p<.01$ . \*\*\*  $p<.001$ .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붓스트랩(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평가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여 두 변인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beta=-.162, p<.01$ ). 반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어머니의 가족유연성 평가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부부갈등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어머니 가족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 $\beta$ )	직접효과( $\beta$ )	간접효과( $\beta$ )
모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57(-.123)**	.018(.039)	-.075(-.162)**
부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30(-.065)	-.016(-.034)	-.014(-.031)

\*\*  $p < .01$ .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패널데이터 5~7차 연도(2012~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 내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2012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간의 관계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이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의 지각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모두 부부 관계의 질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자녀와의 관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와의 애정 있고 반응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itzmann, 2001; 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또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는 자기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느끼는 갈등수준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부부관계의 특성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Cummings, Merrilees, & George, 2010),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나 양육태도에 있어서 환경적 요

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 2016; Holmes & Huston, 2010)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에 부모가 함께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갈등 해결 기술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 평가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검증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는 부모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유연성의 개념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의 변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가족 내·외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변화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유연성 수준은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자신이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자신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역할 분배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부부갈등의 원인 중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역할 분배 및 전환의 불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경우 양육 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도 어머니는 가사 및 자녀 돌봄 등 가족영역에 보내는 시간비율이 더 높고, 유급활동과 여가활동의 비율은 아버지보다 낮으며,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장미나·한경혜, 2011). 전업모의 경우에도 취업모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 2015), 이러한 역할 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가족유연성의 평가와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부갈등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

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부갈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았고 가족유연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유아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이 더 낮았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미지·문혁준, 2014; 김미정, 2015)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부부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갈등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나 적응적인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녀의 발달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은 부부갈등의 존재 자체보다는 부부 간 긴장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갈등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영향력의 경로가 어머니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일상적인 자녀 돌봄 시간이 더 많은 어머니의 경우 부부갈등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경직된 역할 관계를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가족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과 더욱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가족관계의 특성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가정 및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사회성 발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유아기 후기에 증가하는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이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상호작용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어머니-아버지의 짝 자료를 사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가족 내에서 부모의 관계적 특성 및 가족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더욱 정확하게 밝혀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보육정책이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을 보완하여,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족 단위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3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관계적 변인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단기 종단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확장하여 영아기부터 부모 변인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더욱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거나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나 가족유연성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 수준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의 유형, 갈등해결 방법과 같이 독립변인을 세분화한다면 부부관계의 특성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의 지표로 활용한 사회적 유능감 외에도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이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상·권가영·류경희(201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정서지능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4), 329-356.
-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권태우·조규관(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학급풍토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205-225.
- 김미정(2015). 아버지 심리특성 및 부부특성, 양육특성과 유아 사회성 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14).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학논집, 18(5), 317-338.
- 김신정·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4), 155-179.
- 민현숙·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2(1), 43-56.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정희·유순화(2007). 지각된 부부갈등이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379-394.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선애순·이미나(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심리행동연구, 4(1), 79-90.
- 우정희·이미숙·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2), 91-101
- 육아정책연구소(2014). 1~6차년도 표본 유지율. <http://panel.kicce.re.kr>에서 2016년 10월 6일 인출
- 윤혜옥·최효식(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아동교육연구, 36(3), 357-378.
- 이인정·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찬숙·이채호(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사회적 유능감,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아동교육학논집, 13(5), 27-44.
- 임미지·문혁준(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장미나·한경혜(2011).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시간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1-39.
- 정소희(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 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채영문(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채유경(2005). 폭력노출 경험, 부부 갈등, 가족 기능이 초등학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41-1054.
-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아동교육학논집*, 20(2), 495-517.
- 표하나·김영모(2005). 가족기능이 아동의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3), 505-525.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3), 239.
- Cummings, E. M., Merrilees, C. E., & George, M. W. (2010). Fathers, marriages, and families: Revisiting and updating the framework for fathering in family contex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154-176). Hoboken, NJ: Wiley.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 Holmes, E. K., & Huston, A. C. (2010). Understanding positive father-child

- interaction: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contributions. *Fathering*, 8(2), 203-22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D. A., Kashy, D., & Cook, W.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Olson, D. H. (2000a).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44-167.
- Olson, D. H. (2000b). *FACES IV Manual*.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 Shamir, H., Schudlich, T. D. R., & Cummings, E. M. (2001).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1-2), 123-151.
- Rispoli, K. M., McGoey, K. E., Koziol, N. A., & Schreiber, J. B. (2013). The relation of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early childhood to 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643-658.
- Rose-Krasnor, L. (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1), 111-135.
- Webster-Stratton, C., & Lindsay, D. W. (1999). Social competence and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Issues in assess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1), 25-43.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노보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메일 borino@snu.ac.kr

## Abstract

###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 : An Analysis of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Saerom Park, Boram No, Hye Jun Park and Soon-Hyung Y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a) actor-partner effect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ffective parenting and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family flexibility and (b) longitudinal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within dyadic interactions of parents. A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352 couples and their children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Samples were originated from 5th (2012) to 7th (2014) waves of PSKC collected by 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affective parenting was significantly negative in both mothers and fath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or effects. The partner effect wa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in fathers. Second,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family flexibility were significant negatively in both mothers and fathers. Third,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evaluation ha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path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The results emphasize that marital conflict can cause a long-term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adjustment when i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ositive parenting or family adaptabil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mutual dynamism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and fathers and their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Key words: PSKC,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family flexibility, social competence